韓國敎會史學會誌 第35輯(2013) 0105-131

서양 중세교회의 장애인 인식*

-토마스 아퀴나스, 성 루이 9세, 여성 신비가들을 중심으로-

손은실(장로회신학대학교, 학술연구교수)

Ⅰ. 들어가는 말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따르면, 어느 시대나 세계 인구 가운데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사람이 약 10퍼센트에 달했다고 한다[1]. 하지만 심신 손상 혹은 장애 문제가 학문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 본고는 총회장애인신학 정립을 위한 5차 포럼(2013년 4월 10일)과 서양중세사학회(동년 6월 8일)에서 발표되었다. 본고에 대한 논평을 맡아 좋은 질문을 해주셨던 이범성 교수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과 박흥식 교수님(서울대학교)께 감사드린다.

1) P. H. N. Woo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A Manual of Classifications Relating to the Consequences of Disease*, Geneva: World Health Organiation, 1980. I. Metzler, *Disability in Medieval Europe. Thinking about physical impairment during the high Middle Ages*, c. 1100-1400,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6, p. 3에서 재인용.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조사(2002-2004년)에 의하면, 장애인 수치는 훨씬 증가하여, 세계 15세 이상 인구의 15,6%가 장애인이다. 2010년 세계인구 추정치 69억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세계장애인 추정치는 10억이 넘을 것으로 본다.

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장애인 인권 운동과 함께 영국과 미국에서부터 연구가 진행되었다. 장애는 역사가들에게 가장 무시되어 온 주제 가운데 하나였고, 그 가운데서도 중세시대의 장애는 특히 소홀히 취급되었다. 그 결과 표준적인 의학사 텍스트에서도 중세는 '암흑시대'라는 고정관념이 반복되고 있다.[2] 근대의 장애 문제에 대해 탁월한 분석을 한 드보라 마크도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는 중세를 다음과 같은 몇 문장으로 일축해 버린다. "중세시대에 장애인(disabled people)은 일군의 미신적인 관념에 종속되어 박해로 내몰렸다. 손상(impairment)은 신의 심판의 결과이고, 그러므로 죄에 대한 벌로 믿어졌다. 장애인 학대는 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3] 중세의 장애인 인식과 장애인들의 삶은 과연 이렇게 열악하기만 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본고에서 필자는 서양 중세교회의 장애인 인식이 어떠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뿌리를 둔 중세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세 교회의 장애인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한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세 교회는 장애인에 대해 과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애는 죄의 결과인가? 2) 장애인은 성례전에 참여할 수 있는가? 3) 장애인은 성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 4) 영적으로 장애는 어떻게 이해되었는가?

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방대한 서양 중세교회의 사료를 단번에 살펴

장애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는 어느 정도 유동적일 수 있지만, 장애인 문제는 결코 소수자 문제로 볼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세계보건기구, 『WHO세계장애보고서』, 전지혜, 박지영, 양원태 옮김, 한국장애인재단, 2012, p. 2.

2) I. Metzler, *op. cit.*, p. 13.

3) D. Mark, *Diability: Controversial Debates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p. 2.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자 한다. 우선 첫 세 문제에 대해서는 중세시대의 대표적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에 매우 충실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서주석과『신학대전』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네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일차문헌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주제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2차 문헌을 통해 해외 선행연구결과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하는 방법을 채택할 것이다. 여기서는 장애의 영적 차원에 대한 중세교회의 이해에 있어서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 주는 성 루이 9세(토마스 아퀴나스와 동시대인)와 몇몇 여성 신비가들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는 원전과 2차 문헌을 병행하여 연구하는 방법을 통해 중세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규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의 많은 중세사가들의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중세에 대한 편견을 장애인 문제와 관련하여 불식시키는 데 일조하고, 중세의 장애인 인식이 오늘날 장애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색할 것이다.

본고는 필자가 아는 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서양 중세의 장애인 연구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문제들을 다루기 전에 향후 연구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장애 연구에 꼭 필요한 용어 정의와 장애 연구의 모델 그리고 중세의 장애 문제 연구사를 간략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Ⅱ. 예비적 연구

1. 용어 정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첫 번째 용어 정의는 1980년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시도되었다. 세 가지로 분류한 용어 정의이다. '손상, 장애, 핸디캡의 국제 분류'가 그것이다.[4] 이 분류법에 따르면, '손상'(Impairment)은 심리적, 생리적 혹은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 혹은 비정상(abnormality)을, '장애'(Disability)는 손상으로부터 유래하는 인간에게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방식 혹은 범위 안에서 활동을 수행할 능력의 제한 혹은 상실을, '핸디캡'(Handicap)은 손상 혹은 장애를 입은 개인에게 나이, 성,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요인에 걸 맞는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막는 불이익을 각각 지칭한다[5]. 하지만 이 용어법은 의학적 모델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 이후에 두 차례 수정되었다.[6] 이렇게 장애 용어 정의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국제용어분류가 나오기 전에 의학사가들과 중세사가들은 위의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손상과 장애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고 거의 동의어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메츨러는 비록 중세시대에 이런 용어상

---

4)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e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ICIDH.

5)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ICIDH)(WHO, 1980, 27-29. C. Barnes, and G. Mercer, *Exploring Disability. A Sociological Introduc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10, p. 20에서 재인용.

6) 세계보건기구는 1999년 ICIDH2의 시안을 제시했다. 이것은 의학적 개념에 사회 환경적 요소를 가미한 모델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학적 모델을 기준으로 한 장애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2001년 2년간 ICIDH-2 모델 수정작업을 해서 2001년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라는 이름으로 새 모델이 빛을 보게 되었다. 이 모델은 장애나 질병이 아니라 사람에 강조점을 둔다. 김홍덕, 『장애신학』, 대장간, 2010, 17쪽.

의 구분이 없었지만, 중세시대 문제를 다룰 때 현대의 구분법에 따라 이 두 개념을 구분된 것으로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중세시대에 모든 심신 손상자가 자동적으로 장애인으로 취급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구분법을 적용할 경우 자신이 연구한 대부분의 자료에 따르면 중세시대는 장애가 아니라 단지 손상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7] 본고에서 필자는 메츨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중세 장애 문제 연구자들처럼 장애를 현대적인 용어법에서의 손상과 구분되는 의미로만 쓰지 않고, 손상과 장애를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방금 말한 것처럼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 이론가들[8]이 강조했던 생리적 실재로서의 손상과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장애의 구분은 근대의 장애에 관한 연구의 두 가지 모델과 연결되어 있다.

2. 장애 연구의 모델

장애 문제가 이론적으로 연구되면서 의학적 모델에 이어 사회적 모델이 지배적인 연구모델이 되었다. 의학적 모델은 장애를 단지 해결될 필요가 있거나 치료될 필요가 있는 '문제'로만 이해한다. 이와 같은 의학적 접근법의 문제점에 대해 현대의 유력한 장애 연구자인 린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장애의 의학화는 인간적인 차이를 정상으로부터의 이탈로, 병리학적 조건으로, 결함으로, 그리고 현저하게 개인의 짐과 개인의 비극으로 간주한다. 사회는 장애에 대해 의학적 의미를 부여하기로 동의하면서 의학적 시설의

---

7) I. Metzler, *op. cit.* p. 190.

8) S. L. Snyder and D. T. Mitchell, *Cultural Locations of Disability*, Chicago and London, 2006, p. 7; Wheatley, E., "Medieval Constructions of Blindness in France and England", in: Davis, L. J., *The Disability Studies Reader*, New York, London: Routledge, 2010(3rd edition), p. 63; I. Metzler, *op. cit.* p. 20.

> 시야 내에 문제를 유지하고, 장애인의 생활을 위축시키는 사회적 과정과 정책을 취급하기보다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유지시키고, 그 조건과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다루기로 공모한다.[9]

이와 같이 장애 문제를 장애인의 생활을 위축시키는 사회적 과정과 정책의 관점을 도외시하고 개인의 문제와 조건으로만 다루는 의학적 모델의 한계는 사회적 모델의 도입을 유도했다.

사회적 모델은 '손상'과 '장애', 두 개념의 분리를 주장한다. 즉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심신의 손상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인 장애로 인해 삶에 충만하게, 공평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할 때 장애인이 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모델의 제안자들은 '시각 손상'은 점자와 같은 대안적인 글자 매체를 제공하지 않을 때 '장애'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지적인 손상은 그런 손상을 가진 사람이 포괄적인 교육의 기회의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 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일부학자들은 사회적 모델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사회적 모델은 사회적 고통만 강조함으로써 신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손상'과 '장애'를 때때로 지나치게 인위적인 방식으로 이원적으로 대립시키고 상호작용의 여지를 간과하기 때문이다.[10]

이러한 사회적 모델의 한계를 넘어서는 또 다른 모델은 문화적 모델이다. 문화적 모델은 손상과 장애의 구분을 제거하고, '장애'에 사회적 낙인찍기(stigmatization) 뿐만 아니라, 신체적 차이의 현실을 포함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손상과 장애를 통합적으로 보는 모델은 장애를 가진 사람

---

9) S. Linton, *Claiming Disability: Knowledge and Identity*, New York: NYU Press, 1998, p. 11.
10) S. L. Snyder and D. T. Mitchell, *Cultural Locations of Disability*, Chicago and London, 2006, p. 7.

들의 경험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고려하는데 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11)]

Ⅲ. 중세 장애인 연구사

중세시대 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의학적, 문화적 실재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양하지만, 별도로 장애인의 체험에 관련된 자료는 없다.[12)] 사실 당시 사고방식에서 장애인은 병자와 함께 빈민과 거의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13)] 따라서 최근까지 중세사 연구자들은 장애를 별도의 주제로 다루지 않고, 중세의 빈민 혹은 질병을 다룰 때 부수적으로 다루어왔을 뿐이다. 이런 연구 가운데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중세 소외집단에 관한 탁월한 연구로 손꼽히는 폴란드 역사가 게레멕의 저서는 시각장애인 숙박소와 한센병 환자 수용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다.[14)] ② 중세의 빈민 연구에서 고전적인 위치를 가진 프랑스 역사가 몰라의 책에도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산발적으로 나온다.[15)] ③ 사회가 질병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사회의 행정조직 혹은 종교적 실천의 실제적인 의미를 보다 잘 관

---

11) 에일러(J. R. Eyler)는 중세시대 장애 연구를 위한 모델을 모색할 때 문화적 모델이 가장 나은 도구로 입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yler, J. R., *Disability in the Middle Ages*. Reconsiderations and Reverberations, Ashgate, 2010, p. 6.

12) D. Le Blévec, “Infirmes et infirmités dans la société médiévale, d'après les sources méridonales”, in: F. Collard, E. Samama(sous la direction de), *Handicaps et sociétés dans l'histoire*. L'estropié, l'aveuble et le paralytique de l'Antiquité aux temps modernes, Paris: L'Harmattan, 2010, p. 145.

13) B. Geremek, *Les marginaux parisiens aux XIVe et XVe siecles*, tr. du polonais par D. Beauvois, Flammarion, 1976, p. 209. [영역: *The Margins of Society in Medieval Paris*, Cambridge, 1987]

14) *Ibid.*

15) Mollat, *Les pauvres au Moyen Age*, étude sociale, Hachette, 1978.

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고 중세시대의 병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프랑스 역사가 뚜아띠는 한센병에 초점을 맞추었다.[16)]

이런 선행 연구들과 달리 중세사 분야에서 장애를 별도의 주제로 다룬 첫 번째 연구는 2006년에 출간된 메츨러의 저서다. 메츨러는 대부분의 장애 연구에서 역사 감각이 결여된 점이 주된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17)], 장애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시도한다. 그녀는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중세 장애 연구에 착수하면서, 현대의 장애 연구 이론을 차용하여 중세 의학 자료와 12-14세기의 성인 기적 자료를 분석하고 중세시대의 장애 문제를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중세 장애 연구에 전기를 마련한 이 메츨러의 저작에 이어 2010년에 두 권의 연구서가 출판되었다. 에일러와 휘틀리의 연구가 그것이다.[18)] 이 가운데서 휘틀리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채택하지만 중세의 장애는 장애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의 힘을 조명하는 종교적 모델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9)] 본고의 연구 방향은 휘틀리의 생각과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현대 장애 연구의 개념적 도구와 연구 모델은 중세 장애연구에 유용한 경우 현대적 관점을 중세에 투사하여 적용하는 시대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예비적 연구를 토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중세교회의 장애인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

16) F.-O. Touati, *Maladie et société au Moyen âge : la lèpre, les lépreux et les léproseries dans la province ecclésiastique de Sens jusqu'au milieu du XIVe siècle*, Paris ; Bruxelles : De Boeck université, 1998, p. 11.

17) I. Metzler, *op. cit.,* p. 36-37; 다음 논문도 장애 연구에서 역사 감각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한다. E. Bredberg, “Writing Disability History: problems, perspectives and sources”, *Disability and Society* 14(2), 1999, p. 189-201.

18) J. R. Eyler, *Disability in the Middle Ages. Reconsiderations and Reverberations*, Ashgate, 2010; E. Wheatley, *Stumbling Blocks Before the Blind. Medieval Construction of a Disabilit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10.

19) E. Wheatley, *Stumbling Blocks*, p. 9-10.

Ⅳ. 중세교회의 장애인 인식

1. 장애는 죄의 결과인가?

성서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 텍스트로서 중세에 통용된 장애에 관한 종교적 개념 탐구의 출발점이다. 구약에서는 신체손상이 주로 금기 혹은 벌과 연결되어 있는 반면[20], 신약에서는 주로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 행해진 치유 기적과 연결되어 있다. 벌에서 치유로 강조점이 이동된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구약에도 신체손상자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명하는 구절(레 19:14)이 있고, 신약에서도 신체손상을 벌과 연결시키는 구절(요5: 14)이 있다. 이처럼 신체손상에 관한 신구약 성서의 입장은 단순하지 않다.

그러면 중세 교회는 장애와 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 중세교회의 공적인 입장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서주석 가운데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텍스트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성서 본문 가운데서 “장애인들의 복음”, 혹은 “장애인을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해방선언문”[21]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9장 1-3절에 대한 주석이 바로 그것이다.[22]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고 계셨다. 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장애인 본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는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대답하신다.

---

20) 레 21: 17, 18, 21, I. Metzler, p. 43.
21) 김홍덕, 위에 인용된 책, 310쪽.
22) Thomas de Aquino, *Super Evangelium S. Ioannis lectura*, c. 9, lect. 1.

토마스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복음서 기자는 장애의 원인에 대해 접근한다고 해석한다. 제자들은 당시의 통념에 따라 인간의 모든 약함은 죄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그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던 것이다.

우선 토마스는 장애의 원인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당사자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토마스는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상기시키며,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장애를 겪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이와 같이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죄로 인한 벌이 장애의 원인일 것이라는 제자들의 추측을 배제하신 것이다. 여기서 토마스는 예수님의 대답과 대립되어 보이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씀을 상기시킨 후, 실제로는 대립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즉 예수님의 답변은 시각 장애인이나 그의 부모가 아담의 죄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유전된 원죄나 그들 자신이 범한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마스는 예수님이 그가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참된 이유라고 말씀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를 주석하면서 대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욥기에 대한 도덕적 주석』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시련을 보내시는 다섯 가지 방식을 인용한다.[23] 하나님은 때때로 ① 영원한 벌의 시작으로서(렘 7:18), ②교정을 위해(시 17:36), ③ 미래의 잘못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고후 12:7), ④ 박해에 잇달

23) *Morales sur Job*, c. 5, SC 32, 12, p. 133-134.

아 오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고후 12:9) 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9: 3) 시련을 보내신다. 토마스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장애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바로 다섯 번째,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에 해당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토마스는 장애인 해방 선언문과 같은 이 성서 본문 주석에서 성서의 의도에 일치하여 죄가 장애의 원인이 아님을 매우 설득력 있게 밝힌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성서의 어떤 구절은 신체손상과 죄를 연결한다. 같은 요한복음 5장 1-18절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에서 예수님이 치유받은 사람에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14절)고 말씀하신 구절은 신체손상과 죄를 연결시키는 구절로 자주 인용된다. 토마스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 “왜 주님은 이 마비된 사람과 치유된 어떤 이들에게는 죄를 말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말하지 않는가?” 토마스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다. 그 이유는 어떤 이들에게는 병이 과거의 죄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병이 과거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는 죄를 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어떤 병은 자연의 성향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또 다른 병은 욥의 경우처럼 시련으로서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24)]

방금 살펴 본 토마스의 성서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세 시대에 병 혹은 장애가 항상 죄와 연결된 것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중세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제 4차 라테란 공의회(1215년)의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다. “신체의 병약함(infirmitas)은 때때로(nonnumquam)

---

24) Thomas de Aquino, *Super Evangelium S. Ioannis lectura*, c. 5, lect. 2. “quia non omnes infirmitates propter peccata priora proveniunt; sed quaedam ex naturali dispositione, quaedam propter probationem, sicut in Iob.”

죄에 의해 야기되었다."[25] 이 공의회의 법령은 죄와 병 혹은 장애의 인과적 연결을 단지 '때때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2. 장애인은 성례전에 참여할 수 있는가?

토마스는 인지능력이 결여되어 성례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 장애인도 세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가 이 문제를 다루는 곳은『신학대전』에서 3부 68문이다. 68문의 마지막 절인 12절에서 토마스는 미친 사람(furiosi)과 지각이 없는 사람(amentes), 즉 이성적 능력이 제한된 지적 장애인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 문제에 대해 대답하면서『신학대전』의 구조에 따라 먼저 이들에게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논거들을 제시한다.[26] 그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보다 강력해 보이는 두 가지 논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수세자의 의도(intentio)가 요구되는 바,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 미친 사람과 지각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의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거는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것은 이성에 의해서인 바, 미친 사람과 지각이 결여된 사람은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에게 세례를 주지 않듯이, 미

---

25) 제 4차 라테란 공의회 법령 22 (Cum infirmitas). D. W. Amundsen, *Medicine, Society, and Faith in the Ancient and Medieval Worlds*, Baltimore, MD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p. 266에서 재인용.

26)『신학대전』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절(articulus)은 중세 대학의 정규 교과목이었던 토론 문제(quaestiones disputatae)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 형식은 한 문제에 대해 상반되는 두 입장의 논거를 모두 검토함으로써 논증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상반되는 두 입장 가운데 바른 대답과 대립되는 입장의 논거가 먼저 제시된다.『신학대전』각 절의 구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책을 참조하시오. 토마스 아퀴나스,『신학대전: 자연과 은총에 관한 주요 문제들』(『신학대전』의 발췌 번역본), 손은실, 박형국 옮김, 두란노 아카데미, 2011, 46-48쪽.

친 사람과 지각이 결여된 사람에게도 세례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논거를 토마스는 어떻게 반박할까? 첫 번째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는 지적 장애인들은 비록 스스로 의도를 가질 수 없더라도 유아들의 경우처럼 교회의 의도에 의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미친 사람 혹은 지각이 없는 사람은 가령 신체 기관[뇌]의 어떤 장애와 같은 우연적인 원인에 의해 이성의 사용을 결여한 것이지, 동물처럼 이성적 영혼(anima rationalis) 자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반박한다.[27]

이와 같이 지적 장애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는 주장을 비판한 후 토마스는 미친 사람과 지각이 결여된 사람의 다양한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교회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우선 태어날 때부터 전혀 이성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유아들의 경우처럼 교회의 신앙 안에서 세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둘째, 한 때는 온전한 정신을 가졌다가 미치게 된 사람의 경우는 정신이 온전할 때 그들이 표현한 의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즉 그들이 세례를 받으려는 의지를 표명했으면 세례를 주어야 한다. 셋째, 태어날 때부터 미친 사람이거나 지각이 없는 사람이 잠시 이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그들이 세례 받기를 원하면, 다시 미치게 되더라도 세례 줄 수 있다.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는 바로 그 때 세례를 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다 경건하게 성례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성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 마지막으로 정신이 완전히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구원에 대해 생각하고 성례전의 덕을 이해할 만큼의 충분한 이성을 가진 경우, 정신이 온전한 사람처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의지에 반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원할 때 세례를 주어야 한다.[28]

---

27) ST III, 68, 12, obj. 1; obj. 2; ad 1; ad2.

지적 장애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는 토마스의 주장을 요약해 보자. 첫째, 지적 장애인은 뇌의 장애로 인해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일 뿐이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성적 영혼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둘째, 지적 장애인들이 비록 그들 스스로 이성 사용을 할 수 없더라도 '교회의 신앙'과 '교회의 의도'에 의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성례전의 내적 효과인 은혜를 만들어 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으로서[29], 하나님은 유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적 장애인들에게 영적인 재생에 해당하는 세례의 성례전을 통해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은혜를 받게 하시기 때문이다.[30] 마지막으로 토마스는 지적 장애인이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그들의 의지에 반해서 세례를 주는 것을 경계한다. 토마스는 어떤 경우도 본인의 의지에 반해서 강제로 세례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그가 유대인의 자녀나 불신자의 자녀들이 스스로 이성을 사용하기 전 부모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그들의 부모의 의사에 반해서 세례를 주는 것은 정의와 교회의 관습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천명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31]

그러면 토마스는 지적 장애인이 성찬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신학대전』3부 80문 9절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그는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찬을 주어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토마스는 이들에게 성찬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몇 가지 제시한다. 그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

---

28) ST III, 68, 12, c.

29) ST III, 64, 1, c.

30) ST I-II, 113, 3, ad1.

31) ST III, 68, 10, c. 토마스는 4차 공의회인 톨레도 공의회의 유대인에게 강제로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decret., dist. XLV)을 인용한다. 이 규정은 정의가 온전히 유지되도록 유대인들에 강제로 구원을 받게 해서는 안 되고, 원할 때 받게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ST III, 68, 10, sc.

는 주장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찌니”)에 기초하여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성찬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 토마스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이성 사용을 결여한 사람들도 어떤 이는 현재, 또 어떤 이는 과거에 성찬에 대해 신심을 가질 수 있다.”[32] 또한 토마스는 “지각이 결여된 사람에게 경건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어야 한다.”는 오렌지 공의회 법령을 인용하고, 이 고대 교회 공의회 법령에 따라 지적 장애인에게 경건의 성례전인 성찬을 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그는 이 결론에 목회 차원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른 상이한 판단을 덧붙인다. 다시 말해 그는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한다. 이성 사용이 미약한 사람과 이성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성찬에 대해 조금이라도 신심(devotio)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성찬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반면에 이성을 조금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성례전에 대해 어떤 신심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성찬을 주면 안 된다.[33]세례는 이성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교회의 신앙에 의해 받을 수 있다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토마스는 세례는 영적 삶의 시작을 위해 필요한 것인 반면, 성찬은 영적 삶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둘의 위상을 구분한다. 이런 위상의 구분을 토대로 성찬은 세례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34]

32) ST III, 80, 9, ad1.
33) ST III, 80, 9, c.
34) ST III, 73, 3, c.

3. 장애인은 성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

레위기에서는 신체장애가 있는 제사장은 제단에 접근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레 21:17, 18, 21). “장애가 있을 경우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다(레 21:23).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대제사장은 - 그것이 비록 일시적인 장애라 하더라도 - 제단에서의 제사 수행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다(레 22:17, 25; 말 1:7-8).”[35]

학자들은 레위기 금지 규정(레21:17-23)이 중세 시대에 줄곧 엄격히 고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36] 하지만 이 같은 추정은 역사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신학대전』에서 토마스는 레위기 금지 규정을 철회하는 법규정인 그라티우스 교회법[37] 법령 12를 인용하고 있다. “교회법규는 장애인이 성직을 받을 수 있음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직 서품을 받은 후 손상을 입는다면, 온전한 상태에서 받은 것을 상실할 수 없다.”[38] 이와 같이 어떤 경우에도 장애인에게 제단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레위기 규정을 철회하고 이미 성직자가 된 경우 제사 수행을 허용하는 규정은 이보다 훨씬 앞서 4세기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도헌장에서도 발견된다. 사도헌장은 감독은 신체 손상 때문에 직무 수행을 금지 당해서는 안 되고,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 신체가 손상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9]

그렇다면 장애 상태에 상관없이 언제나 성례전을 집행할 수 있다는 말

---

35) 채은하, 「구약성경에 나타난 장애인의 삶과 장애인 신학의 시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장애인신학기획 2차 포럼 자료집』, 2011, 14쪽.

36) I. Metzler, *op. cit.*, p. 40.

37) 1140-1150년 경에 작성됨.

38) ST III, 82, 10, obj. 3.

39) *Les constitutions apostoliques*, introduction, texte critique, traduction et notes par M. Metzger, Sources chrétiennes , n. 320.

인가? 그렇지는 않다. 토마스는 장애를 입은 사제들이 어떤 경우에 성례전을 집행할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눈, 손, 혀 등을 상실해서 성찬을 집례 할 수 없는 경우, 간질의 경우와 같이 성례전 집례가 위험한 경우, 보는 이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한센병의 경우는 비공개적으로는 집례 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는 안 된다.[40)]

지금까지 살펴 본 것에서 이미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찬 근대의 중세관에서 비롯되는 추측, 즉 중세의 장애인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을 것이라는 추측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장애의 영적인 가치와 유익을 강조한 사람들이 있다.

4. 장애의 영적인 가치와 유익을 강조한 성 루이 9세와 중세 여성 신비가들

대부분의 중세인들도 근대인들처럼 병이나 장애를 피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병이나 장애가 영적으로 긍정적인 가치와 유익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환영한 사람들도 있었다. 병이나 장애의 영적 유익을 높이 평가한 중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본고에서는 13세기의 프랑스 왕 성 루이 9세와 중세 여성 신비가들을 부분적으로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① 성 루이 9세(St. Louis IX, 1215-1270)

성 루이왕은 자주 아팠고 육신의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다. 그는 오

40) ST III, 82, 10, ad 3.

른 쪽 다리 피부병과 학질 등 만성병을 앓았다. 인격 전체가 신앙에 뿌리를 내린 그는 육체의 고통과 병에 짓눌릴수록 점점 더 열렬하게 영적인 성장을 추구했다.[41] 중세시대에 신체의 고통은 영적인 정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자주 이해되었다. 루이 왕은 이런 이해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 『성 루이 왕의 생애』는 그가 받은 신체의 고통과 그의 거룩성이 연결되어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그가 겪은 잦은 신체의 고통과 그가 흘린 많은 눈물은 예외적인 거룩성으로 인용되었다.[42]

성 루이 왕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자신의 위대한 모델로 삼았다.[43] 그는 그리스도의 고통 받은 몸에 대해 절대적인 신심을 가지고 있었다.[44] 그는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고 정화시키는 고통의 영적인 유익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스스로 고통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들에게도 병과 고통을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고 그것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권고했다.[45]

이와 같이 그가 육체적 고통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은 그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쳤다. 루이왕은 장애인을 단지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회개와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치있는 존재로 이해했다.[46] 예컨대 그는 자신이 설립한 깽즈-뱅(Quinze-Vingts) 병원의 시각장애인들이 영적으로 가치있는 존재이며, 시각 장애가 없는 사람

---

41) Guillaume de Saint-Pathus, *Vie de Saint Louis*, p. 39-40; p. 56; p. 122.
42) J. Le Goff, *Saint Louis*, Paris: Editions Gallimard, 1996, p. 875.
43) *Ibid*., p. 882.
44) Guillaume de Saint-Pathus, *Vie de Saint Louis*, Paris: A. Picard et fils, 1899, p. 56, 122.
45) D. O'Connell, *Les propos de saint Louis*, p. 186, 193, J. Le Goff, *Saint Louis*, Paris: Editions Gallimard, 1996, p. 868에서 재인용.
46) H. Skoda, “Representations of Disability in the Thirteenth-Century Miracles de Saint Louis”, in: J. R. Eyler, *Disability in the Middle Ages. Reconsiderations and Reverberations*, Ashgate, 2010, p. 60.

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보았다.[47] 루이 왕 자신이 먼저 사랑의 정신으로 가득 차서 수많은 수도원과 병원의 환자와 장애인을 직접 방문하였다.[48] 보니파키우스 8세의 1297년 8월 6일 설교 내용 속에도 루이 왕이 일상적으로 한센병 환자 수용소를 방문하여 환자들의 고름을 닦아 주고 직접 자기 손으로 음식을 먹여 주곤 했다는 증언이 발견된다.[49]

② 중세 여성 신비가들[50]

중세 여성의 경우 신체 경험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종교 경험을 신체 경험과 결부시키려는 경향이 남성보다 훨씬 더 강했다.[51] 1000에서 1700년 사이에 성인으로 추대된 여성 가운데 절반 이상에게서 병의 고통을 인내한 것이 거룩성의 주요 요소로 발견된다.[52]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과 신체의 손상을 피해야할 불쾌한 것으로 보았지만, 중세 여성 신비가들은 고통을 “치료”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 “인내”해야 하는 조건으로 보았다. 쿠도의 알파이스(Alpaïs of Cudot, 1150-1211)는 악마가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시엔나의 카타리나도 치료받는 것을 유혹으로 이해하였다.[53]

---

47) E. Wheatley, “Blindness, Discipline, and Reward: Louis IX and the Foundation of the Hospice des Quinze-Vingts”,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22(2002), 194-212.

48) J, Le Goff, *op. cit.*, p. 881.

49) *Ibid.*, p. 880.

50) 이 부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중세의 신체문제에 관해 괄목할만한 연구를 수행해 온 바 이념의 문헌에서 얻은 정보를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할 것이다.

51) C. W. Bynum, *Fragmentation and Redemption: Essays on Gender and the Human Body in Medieval Religion*, New York: Zone Books, 1992, p. 189-190.

52) D. Weinstein and R. M. Bell, *Saints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 234-35. 이 책은 1000년에서 1700년 사이에 살았던 864명의 성인을 다루고 있다.

53) Life of Alpaïs, bk. 3, ch. 4, and bk. 4, ch. 1, AASS, November, vol. 2, pt. 1, Brussels,

여성 신비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병의 영적 유익을 추구했다. 줄리안 노르비치(Julian of Norwich, ca. 1342-ca.1416)처럼 환상을 보는 여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로서의 병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도 했다. 여성 신비가들은 육체와 정신의 고통을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기회로 삼았다. 한센병에 걸린 쉐르베케의 알리스(Alice of Schaerbeke, ca. 1225-1250)는 그녀의 병이 그녀 이웃의 구속(救贖)을 위해 제공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54] 이 모든 여성들은 병을 자발적으로 환영했다. 이 여성들은 병에서 긍정적인 요소, 즉 그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고통 자체를 가치 있다고 보는 고통지상주의자들이 아니었으며, 타인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Ⅴ. 나가는 말

본고는 서양 중세교회의 장애인 인식을 이해하기 위한 시론적인 연구로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성 루이 9세 그리고 몇몇 여성 신비가들을 중심으로 중세 교회의 장애인 인식의 일부분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룬 인물들이 중세교회 전체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의 전통과 당대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중세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루이 9세와 본고에서 언급한 여성 신비가들은 장애의 영적 차원의 인식

1894, p. 196-198. Raymond of Caoua, The Life of Saint Catharine of Sienna, pt. 2, ch. 5, par. 167, AASS, p. 904, C. W. Bynum, *op. cit.*, p. 189에서 재인용.

54) Life of Alice, ch. 3, par. 26, AASS, June, vol.2(1867), p. 476. C. W. Bynum, *op. cit.*, p. 188에서 재인용.

에 있어서 중세교회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 이들을 하나의 표본으로 선택하여 연구했던 것이다.

본고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장애와 죄의 관계에 대해 중세 교회는 장애가 죄와 연결된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장애는 때로는 시련으로, 때로는 최고의 '덕'인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장애인, 심지어 인지능력이 결여되어 성례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지적 장애인도 구원에 필요한 성례전인 세례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셋째, 구약성서에서 장애인에게 엄격하게 금지했던 성직 수행에 대해 중세교회는 성직 서품을 받은 성직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 그의 장애 상태가 성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단순히 비참한 자나 자선의 수혜자로만 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회개와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가치 있는 존재로 이해하였다.[55]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서두에서 인용했던 근대 장애 연구가들이 중세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졌던 생각, 즉 중세시대에 장애는 죄에 대한 벌로 인식되어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교회에 의해 용인되었다는 것은 지나친 편견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인들의 편견과는 반대로 중세의 장애인들은 은총의 질서 안에서 결코 배제되지 않았다. 고전적인 장애사 연구서의 저자인 스티케의 말처럼, 중세의 장애인 인식은 그 이전과 그 이후와 비교할 때, "윤리적이고 신적인 사랑의 영향 아래 있었다"[56]

---

55) 예컨대 한센병 환자들은 비록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현세에서 고통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각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제프리 리처즈, 『중세의 소회집단』, 느티나무, 2003, 310쪽.

56) H.-J. Stiker, *Corps infirmes et sociétés*, Paris: Dunod, 2005(3 edition), p. 87.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규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적 장애인을 이해하는 신학적 통찰력은 현대 장애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본다. 토마스는 지적 장애인이 비록 신체 기관인 뇌의 장애로 인해 이성을 사용하지 못할지라도 이성적 영혼을 결여한 사람이 아님을 명시했다. 다시 말해 지적 장애인은 비록 뇌의 기능은 손상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인간의 본질적 형상인 이성적 영혼 자체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토마스의 장애인 인식은 그 보다 3세기 이후의 종교개혁자들의 인식과 비교해 보면 훨씬 복음적이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관점에 입각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7)]

짧은 지면으로 구성된 본고에서 천년을 아우르는 중세 교회의 장애인 인식과 장애인의 삶 등을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었다.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중세인의 몸에 대한 기록이나 질병과 병자에 대한 문헌을 폭넓게 찾아서 본고의 미진한 연구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후속 연구가 속히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손상, 장애, 지적 장애, 토마스 아퀴나스, 루이 9세, 중세 여성 신비가, 중세교회, Impairment, Disability, intellectual disability, Thomas Aquinas, St. Louis IX, Medieval Women Mystics, Medieval Church

57) 깔뱅은 정신지체자를 사탄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설교했으며, 루터는 정신지체 아동을 영혼이 없는 '살덩어리'(massa carnis)라고 말했다. M. A. Winzer, "Disability and Society Before the Eighteenth Century", in: L.J. Davis, *The Disability Studies Reader*, First Edition, p. 94. 깔뱅과 루터가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여기 인용된 윈저 외에도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거듭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루터와 깔뱅의 저작에서 직접적인 전거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루터의 『탁상담화』에서 직접 발견한 표현에 따르면, 루터는 정신 이상자들을 "육체적으로 마귀에 사로잡힌 자"라고 말한다. 마르틴 루터, 『탁상담화』, nr. 630, 이길상 옮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378쪽.

참고문헌

1. 고중세 문헌

Grégoire le Grand, *Morales sur Job*, Paris: Cerf, 1952(SC 32).

Luther, M., *Tischreden*(국역: 『탁상담화』, 이길상 옮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Thomas de Aquino, *Summa theologiae*, Cura et studio Instituti Studiorum Medievalium Ottaviensis, 5t., Ottawa, 1941-1945.

_____, *Super Evangelium S. Ioannis lectura*, R. Cai(éd.), Turin-Rome, 1952.

_____, 『신학대전: 자연과 은총에 관한 주요 문제들』(『신학대전』의 발췌 번역본), 손은실, 박형국 옮김, 두란노 아카데미, 2011.

2. 현대 문헌

김홍덕, 『장애신학』, 대장간, 2010.

세계보건기구, 『WHO세계장애보고서』, 전지혜, 박지영, 양원태 옮김, 한국장애인재단, 2012.

안교성,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 서울: 홍성사, 2003.

채은하, 「성서와 장애인」, 『교회와 세계』235호(2005년 여름), 222-23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엮음, 『장애 너머 계신 하나님』,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12

Amundsen, D. W., *Medicine, Society, and Faith in the Ancient and Medieval Worlds*, Baltimore, MD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Barnes, C., & Mercer, G., *Exploring Disability. A Sociological Introduc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10.

Bredberg, E., “Writing Disability History: problems, perspectives and sources”, *Disability and Society* 14(2).

Collard, F. & Samama, E.(sous la direction de), *Handicaps et sociétés dans l'histoire. L'estropié, l'aveuble et le paralytique de l'Antiquité aux temps modernes*, Paris: L'Harmattan, 2010.

Eyler, J. R., Disability in the Middle Ages. *Reconsiderations and Reverberations*, Ashgate, 2010.

Geremek, B. *Les marginaux parisiens aux XIVe et XVe siècles,* tr. du polonais par D. Beauvois, Flammarion, 1976. [영역: *The Margins of Society in Medieval Paris*, Cambridge, 1987]

Guillaume de Saint-Pathus, *Vie de Saint Louis*, Paris: A. Picard et fils, 1899.

Le Goff, J., *Saint Louis*, Paris: Editions Gallimard, 1996.

Jeffrey, R., *Sex, dissidence, and damnation : minority groups in* the *middle ages*(국역:『중세의 소회집단』, 유희수, 조명동 옮김, 느티나무, 2003).

Linton, S., *Claiming Disability: Knowledge and Identity*, New York: NYU Press, 1998.

Mark, D., *Diability: Controversial Debates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Metzler, I., *Disability in Medieval Europe. Thinking about physical impairment during the high Middle Ages*, c. 1100-1400,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6.

Mollat, M., *Les pauvres au Moyen Age, étude sociale*, Hachette, 1978.

Stiker, H.-J., *Corps infirmes et sociétés*, Paris: Dunod, 2005(3 edition).

Touati, F.-O., *Maladie et société au Moyen âge : la lèpre, les lépreux et les léproseries dans la province ecclésiastique de Sens jusqu'au milieu du XIVe siècle*, Paris ; Bruxelles : De Boeck université, 1998.

Weinstein, D. and Bell, R. M., *Saints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Collard, F., Samama, E.(sous la direction de), *Handicaps et sociétés dans l'histoire. L'estropié, l'aveuble et le paralytique de l'Antiquité aux temps modernes*, Paris: L'Harmattan, 2010.

Wheatley, *E. Stumbling Blocks Before the Blind. Medieval Construction of a Disabilit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10.

_____, "Blindness, Discipline, and Reward: Louis IX and the Foundation of the Hospice des Quinze-Vingts",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22(2002), p. 194-212.

Wood, P. H. 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A Manual of Classifications Relating to the Consequences of Disease*, Geneva: World Health Organiation, 1980.

Abstract

Understanding of the Disabled in the Medieval Church:
Thomas Aquinas, St. Louis, and Women Mystics

Son, Eunsil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examines how the disabled were considered in the Western Medieval Church. It centers on Thomas Aquinas, St. Louis IX, and some women mystic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disability was not always associated with a sin in the Medieval Church. Secondly, the intellectually disabled, who lack cognitive abilit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sacrament, were not excluded from the Sacrament of Baptism. Thirdly, contrary to the rigorous prohibition against the disabled performing sacred rituals in Leviticus, medieval priests were not prevented from holding their office just because of physical impairment. Finally, disabled people were not considered miserable or beneficiaries of charity but spiritually valuable and beneficial in maintaining a spiritually healthy society.

In view of our findings, the general assumption of modern authors that

medieval societies saw a link between sin and disability to the extent that the Church sanctioned the abuse of disabled people turns out to be a prejudice. On the contrary, the disabled in the Medieval Church were never excluded from the order of grace. As H.-J. Stiker, the author of a classical monograph on the history of disability, said, disabled people in the Middle Ages, when compared with those in the previous and following ages, can be found under the influence of ethical and divine love.

접 수 일 (2013년 6월 30일)
수 정 일 (2013년 7월 19일)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10일)